

데이터로 보는
전북교육

전라북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현황

| 박호용(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문관)

■ 방과후학교

-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(%) = (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/ 전체 학생 수) * 100
-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(%) = (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수 / 전체 학교 수) * 100

■ 초등돌봄교실

- 오후 돌봄 :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[(시간) ~17:00]
- 저녁 돌봄 : 오후 돌봄에 이어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
[(시간) 17:00~22:00]
-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: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후, 일반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활동
- 초등돌봄교실(오후·저녁·방과후연계) 참여학생 비율(%)
= [초등돌봄교실(오후·저녁·방과후연계) 참여학생 수 / 전체 학생 수] * 100
- 초등돌봄교실(오후·저녁·방과후연계) 운영학교 비율(%)
= [초등돌봄교실(오후·저녁·방과후연계) 운영학교 수 / 전체 학교 수] * 100

■ 자료기준일 : 매년 4.30.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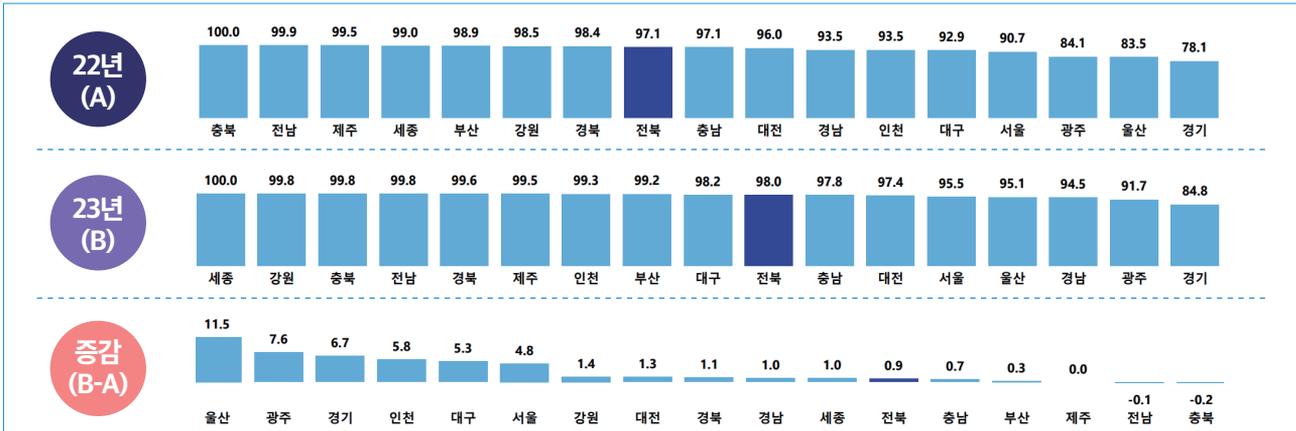


I

방과후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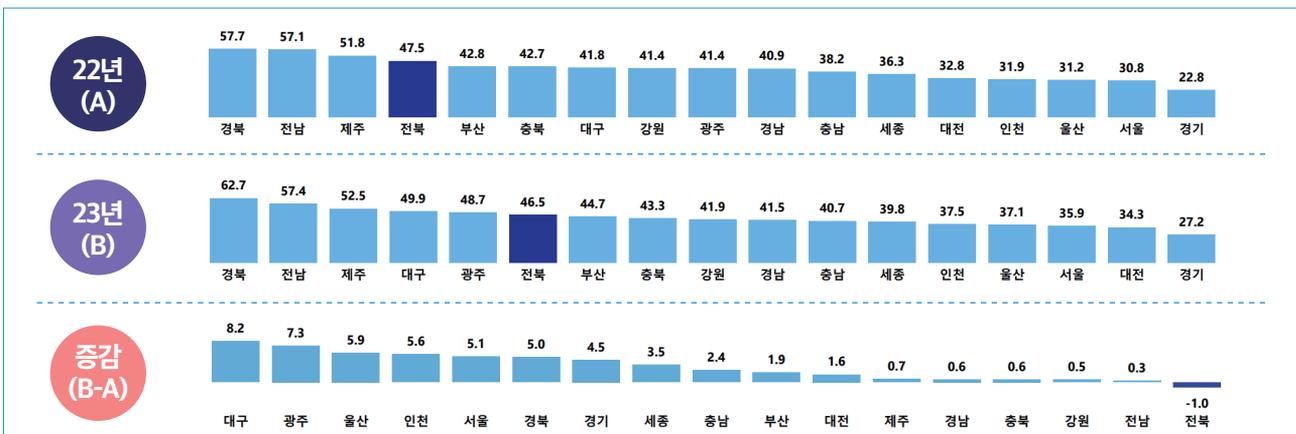
1 전국 시도별

가.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91.8%, '23년 전국 평균 : 95.0%)



- 전북은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이 2022년 97.1%에서 2023년 98.0%로 증가하였음.
- 2022년 충북과 2023년 세종은 초·중·고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고, 2022년과 2023년 모두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이 가장 낮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17개 시·도 중 전남(Δ0.1%p)과 충북(Δ0.2%p)만 소폭 감소하였고, 제주는 증감이 없었음. 나머지 지역은 그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, 그 중 울산(11.5%p), 광주(7.6%p), 경기(6.7%p) 순으로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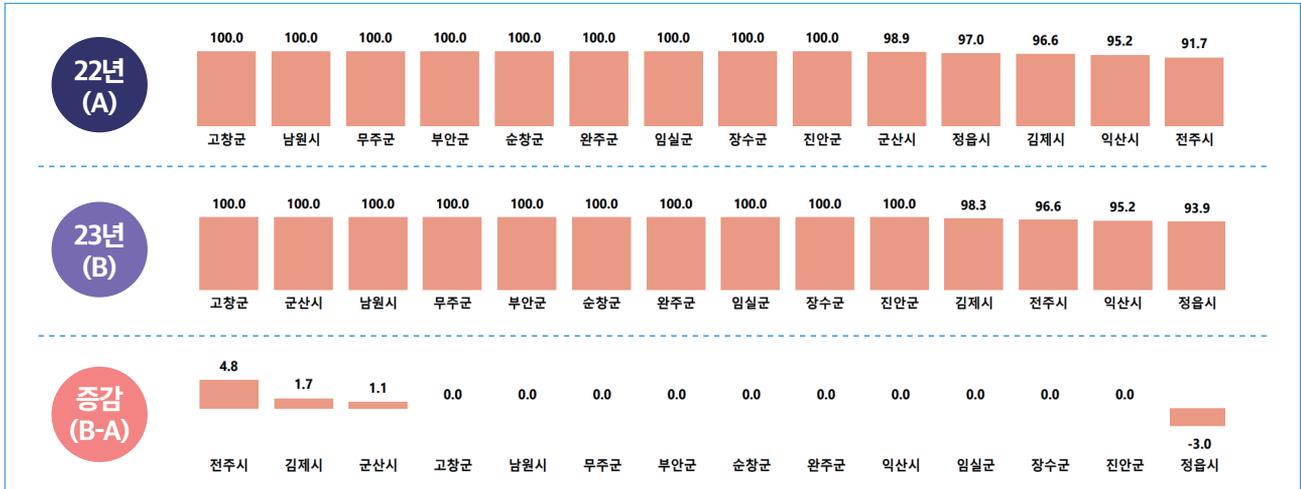
나.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35.1%, '23년 전국 평균 : 38.8%)



- 전북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2022년 47.5%에서 2023년 46.5%로 감소하였음.
- 2022년과 2023년 모두 경북, 전남, 제주 순으로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, 2022년과 2023년 모두 경기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17개 시·도 중 전북(Δ1.0%p)만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,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하였음. 그 중 대구(8.2%p), 광주(7.3%p), 울산(5.9%p) 순으로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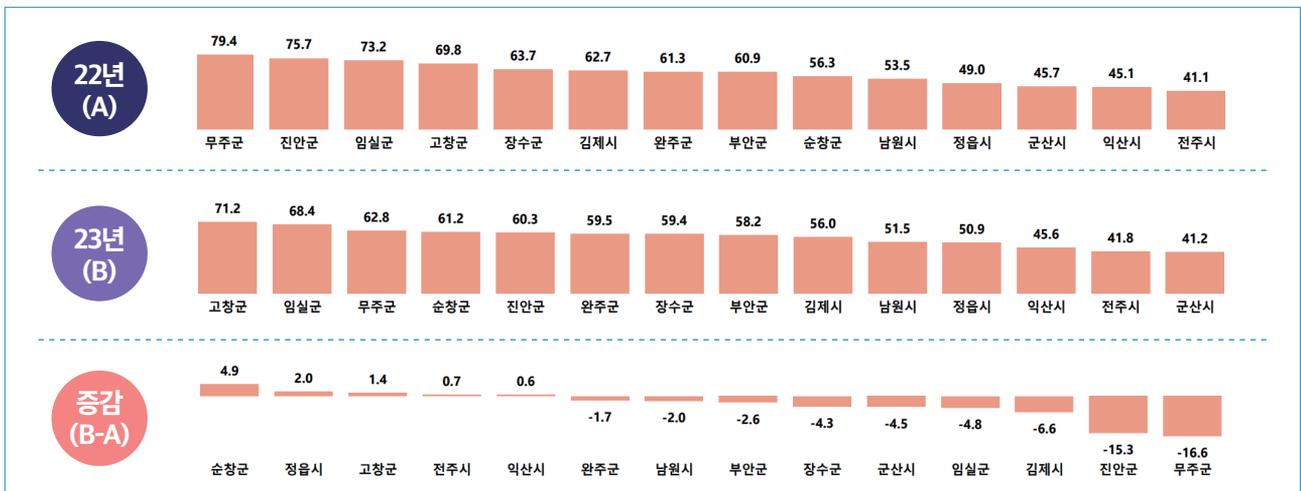
2 전북 시·군별

가.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



-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은 2022년에는 9개 시·군(고창·남원·무주·부안·순창·완주·임실·장수·진안)이고, 2023년에는 10개 시·군(군산 추가)으로 증가하였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전주(4.8%p)·김제(1.7%p)·군산(1.1%p)은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, 정읍은 3.0%p 감소하였음.

나.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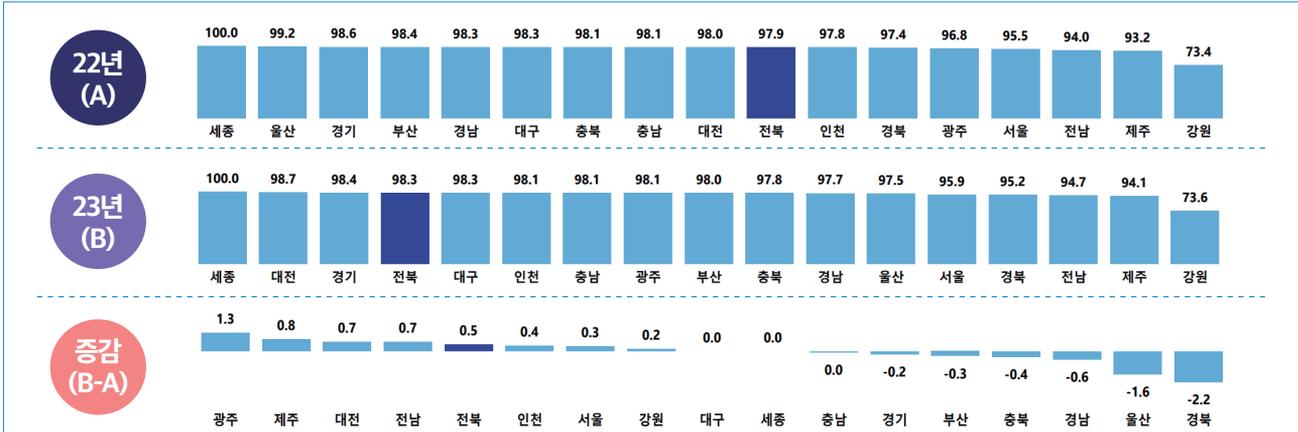
- 2022년에는 무주(79.4%), 진안(75.7%), 임실(73.2%) 순으로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높았고, 2023년에는 고창(71.2%), 임실(68.4%), 무주(62.8%)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5개 시·군이며, 나머지 9개 시·군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. 14개 시·도 중 무주(△16.6%p)와 진안(△15.3%p)은 특히 크게 감소하였음.

II

초등돌봄교실(오후 돌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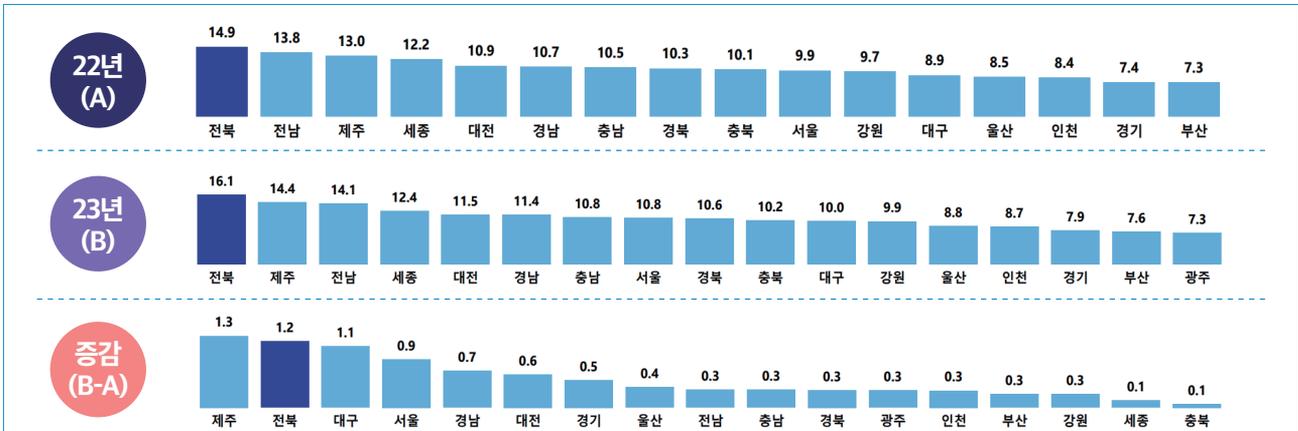
1 전국 시도별

가. 초등돌봄교실(오후) 운영학교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96.1%, '23년 전국 평균 : 96.0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오후) 운영학교 비율이 2022년 97.9%에서 2023년 98.3%로 증가하였음.
- 세종은 2022년과 2023년 모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(오후)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22년과 2023년 모두 강원, 제주, 전남 순으로 초등돌봄교실(오후) 운영학교 비율이 낮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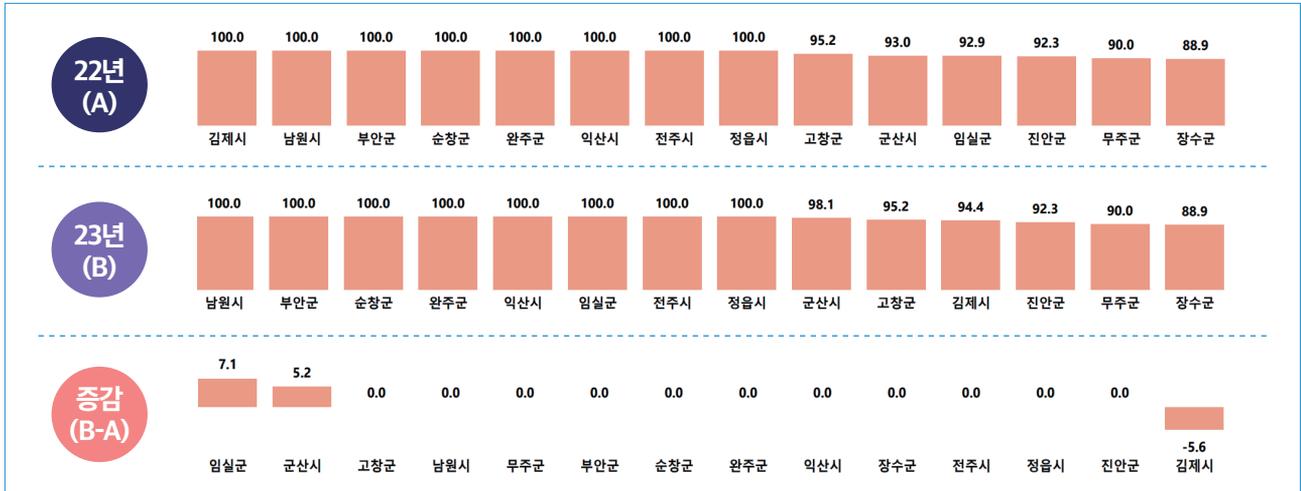
나.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9.3%, '23년 전국 평균 : 9.8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 학생 비율이 2022년 14.9%에서 2023년 16.1%로 증가하였음.
- 전북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, 2022년과 2023년 모두 광주, 부산, 경기, 인천, 울산 순으로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이 낮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17개 시·도 모두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하였고, 제주(1.3%p)·전북(1.2%p)·대구(1.1%p) 순으로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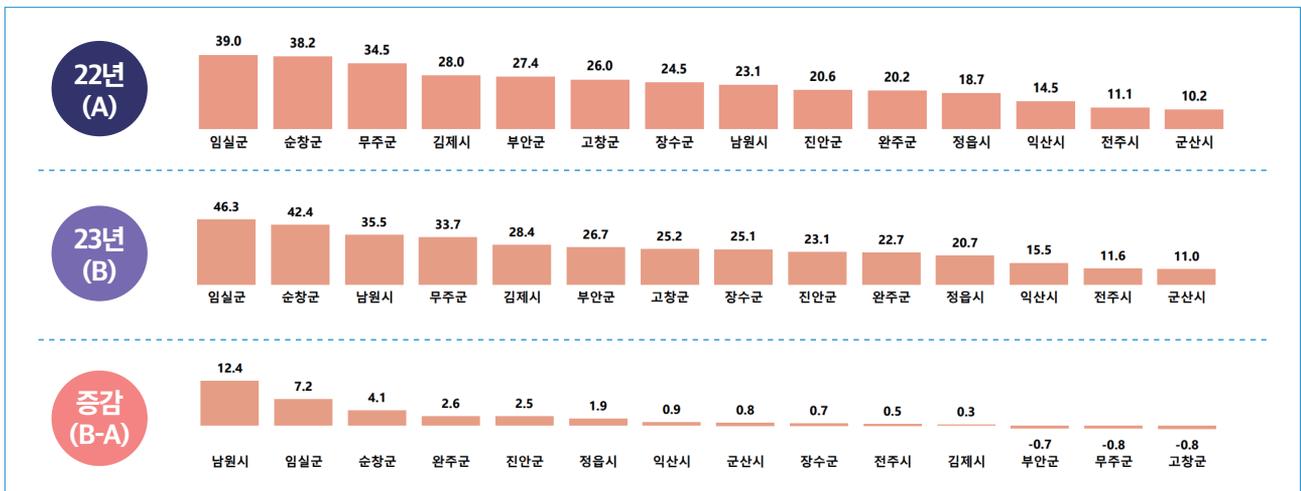
2 전북 시·군별

가. 초등돌봄교실(오후) 운영학교 비율



- 모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(오후)을 운영하는 지역은 2022년에는 8개 시·군(김제·남원·부안·순창·완주·익산·전주·정읍)이고, 2023년에도 8개 시·군(남원·부안·순창·완주·익산·임실·전주·정읍)임.
- 2022년 대비 2023년 임실(7.1%p)과 군산(5.2%p)은 초등돌봄교실(오후) 운영학교 비율이 증가하였지만, 김제는 5.6%p 감소하였음.

나.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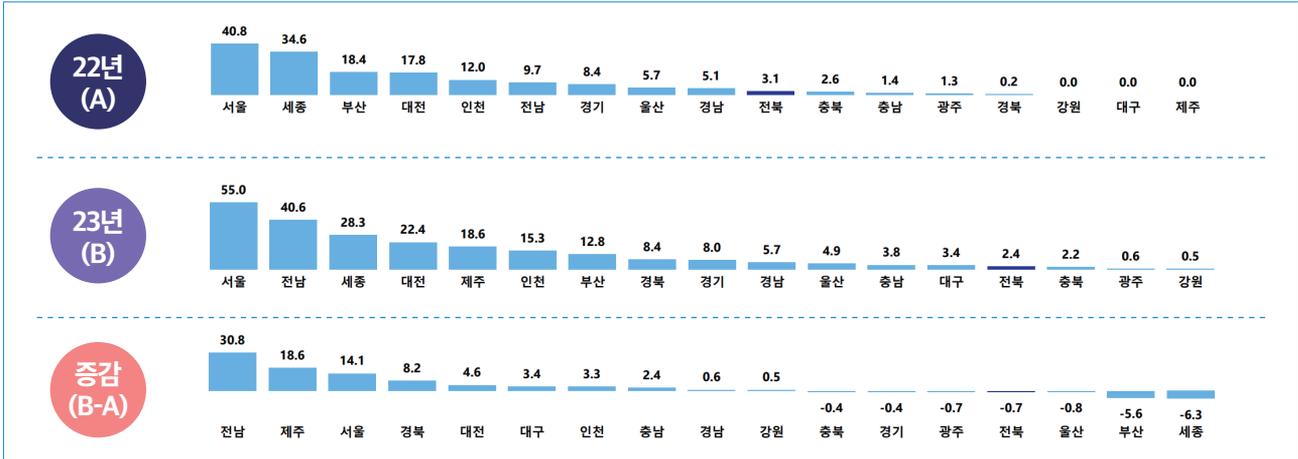
- 2022년에는 임실(39.0%), 순창(38.2%), 무주(34.5%) 순으로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이 높았고, 2023년에는 임실(46.3%), 순창(42.4%), 남원(35.5%)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오후)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11개 시·군이며, 나머지 3개 시·군(고창·무주·부안)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.

III

초등돌봄교실(저녁 돌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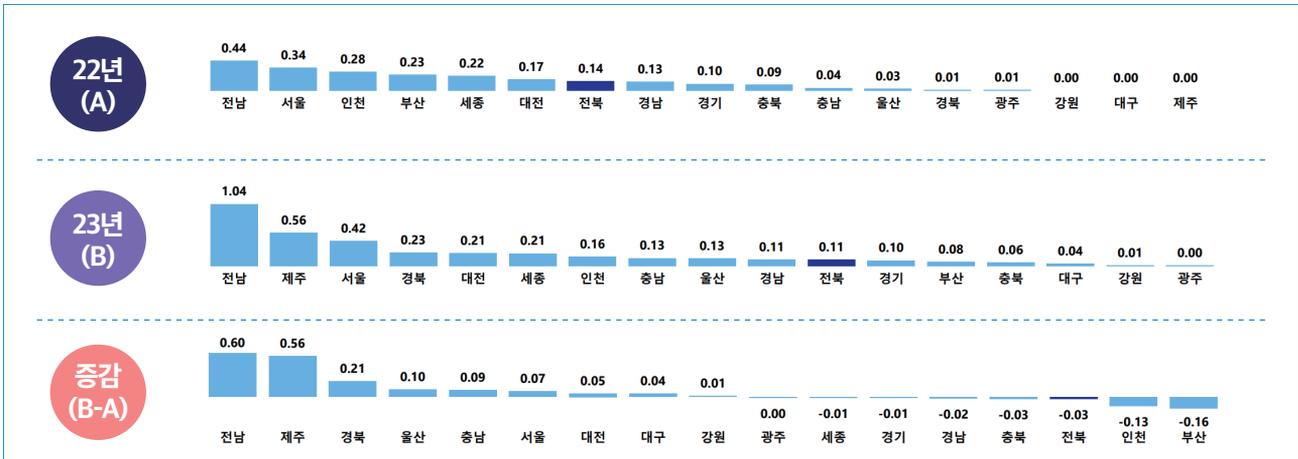
1 전국 시도별

가.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9.5%, '23년 전국 평균 : 14.2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이 2022년 3.1%에서 2023년 2.4%로 감소하였음.
- 서울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(30.8%p)과 제주(18.6%p)임.

나.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0.15%, '23년 전국 평균 : 0.19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이 2022년 0.14%에서 2023년 0.11%로 감소하였음.
- 전남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이 증가한 전남(0.60%p)과 제주(0.56%p)에서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의 비율도 증가하였음.

2 전북 시·군별

가.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



- 2022년과 2023년 초등돌봄교실(저녁)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6개 시·군(진안, 부안, 임실, 익산, 정읍, 전주)임.
- 2022년 대비 2023년 진안(Δ7.7%p), 임실(Δ7.1%p), 익산(Δ1.7%p)은 초등돌봄교실(저녁) 운영학교 비율이 감소하였음.

나.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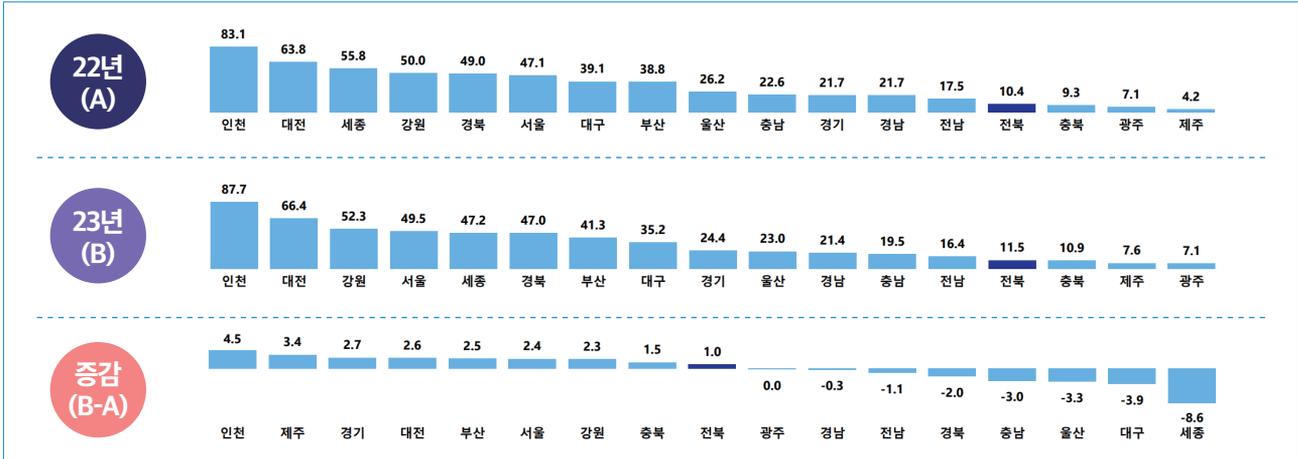
- 2022년과 2023년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진안·임실·부안·정읍·익산·전주 순임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저녁) 참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임실(0.24%p)과 정읍(0.02%p)이고, 감소한 지역은 진안(Δ1.57%p)·부안(Δ0.23%p)·익산(Δ0.05%p)·전주(Δ0.01%p)임.

IV

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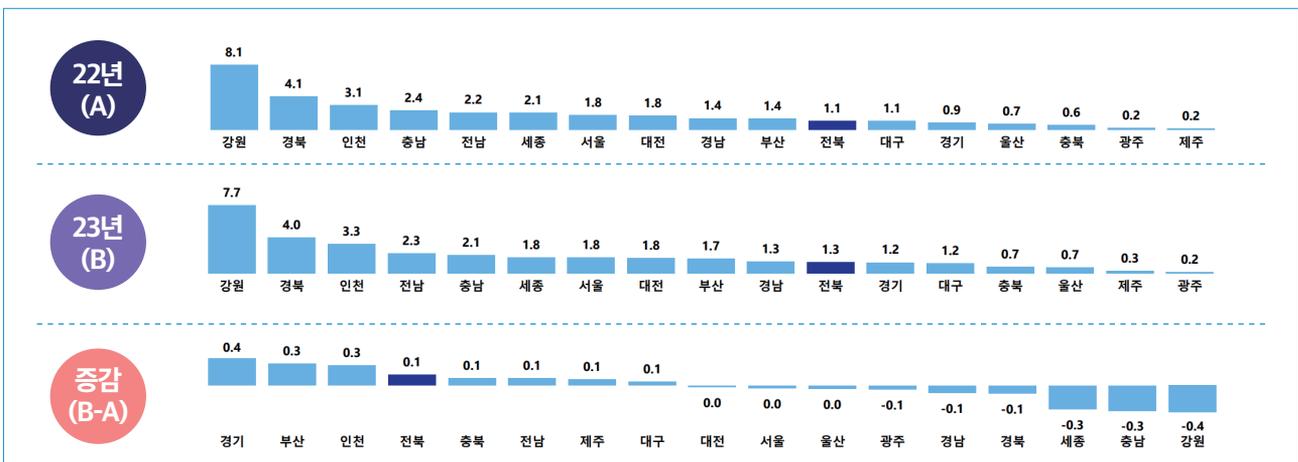
1 전국 시도별

가.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31.2%, '23년 전국 평균 : 32.0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이 2022년 10.4%에서 2023년 11.5%로 증가하였음.
- 인천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천(4.5%p)이며,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(△8.6%p)이었음.

나.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 ('22년 전국 평균 : 1.7%, '23년 전국 평균 : 1.8%)



- 전북은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이 2022년 1.1%에서 2023년 1.3%로 증가하였음.
- 강원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.

2 전북 시·군별

가.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



- 2022년에는 장수를 제외한 모든 시·군이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을 운영하였으며, 2023년에는 남원과 진안을 제외한 모든 시·군이 운영하였음.
- 2022년 대비 2023년 장수(11.1%p), 군산(6.4%p), 김제(5.6%p), 전주(5.3%p)은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운영학교 비율이 증가하였으며, 임실(△14.3%p), 부안(△9.5%p), 진안(△7.7%p), 남원(△3.7%p)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음.

나.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



- 2022년과 2023년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안·임실·정읍·순임.
- 2022년 대비 2023년 초등돌봄교실(방과후학교 연계형) 참여학생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장수(1.7%p)이고,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임실(△3.6%p)임.

출처 - 2022, 2023년 학교알리미(한국교육학술정보원)
 <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>은 전라북도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 [교육정책연구-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]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■ 보고서 바로가기